

식품·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 전략 방안

최종욱
정읍시장 권한대행·부시장

I. 서론

세계 인구증가와 식량관계를 살펴보면, 1세기경(서기 원년)에는 지구상 인구가 약 2억5천만명 정도였으나, 1960년대에는 30억만명으로, 2000년도에는 급기야 65억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 속도를 2% 이내로 감소시키지 않으면 지구상의 식량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생존을 위한 꾸준한 농업기술 연구로 품종개량, 화학비료, 맹독성 농약을 개발해냄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러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제일주의 농업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잉여 식량생산과 과도한 화학비료, 농약등 사용으로 지구상의 토양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인류의 건강에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위하여 1980년대 들어 세계 농업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악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 운동이 대두되었으며, 공업화라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여유와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21세기 들어 지구촌에는 웰빙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존이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에서는 Codex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FTA협상 등 각종 규제사항을 풀고 완전 개방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개발로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갈 때 농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정책만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업과 첨단과학기술을 함께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그래서 정읍시는 2003년부터 신정동에 150만평규모의 식품·생명산업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여기에는 국가RT/RFT산업의 전진기지인 방사선연구원이 건립·개원(05. 4. 1자)되었으며, 전북의 발달된 전통발효산업을 선도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건립되어 준공(06. 10월)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적수준의 GLP인증과 산업계의 수탁 업무를 수행할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를 건립 중에 있어 첨단과학 R&D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첨단과학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병행하여 육성해나가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II. 산업집적화 단지 조성 및 특화전략개발의 필요성

1.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

가.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장기간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업을 추구함으로써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염류집적, 인산카리함량 증가, 미생물 감소 등 토양양분 불균형과 유기물 함량 감소 등 지력쇠퇴로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약화하였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과다 사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다. 또한, 과다 투입된 잉여량은 토양과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토양과 농산물의 농약잔류와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대로 농산물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 구매패턴이 양과 가격중심에서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급변하고 있고, 웰빙 붐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1인당 소비량을 보면 2000년 0.7 kg에서 2002년 4.2 kg, 2003, 2004년에는 각각 7.6 kg과 9.6 kg으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FTA 등 국제 농업무역 구조의 급변과 품질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국의 농업정책은 친환경농업을 중시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도 있다. OECD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환경지속성지수(ESI) 산정시 농약·비료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5년 평가결과 한국은 145개국 중 122위에 랭크(농약 143위, 비료 138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DDA·FTA 등의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는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자명하고 관세에 의한 수입억제도 역시 곤란하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녹색식품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즉, 친환경농업은 농업생산의 지속성 회복 및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로 농업과 환경, 생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필요에 의해 가속화된다고 판단된다. 토양환경 회복 및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로 생산의 지속성을 확보 하고 농업의 환경오염 등 역기능 최소화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으로 발전하려는 운동이 일고 있다. 또한,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는 농산물 공급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환경과 품질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개방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친환경농업 해외동향

1980년대 후반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보전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농촌, 농업인 문제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구 분	호 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미 국	영 국	독 일	스 페인	프 랑스	캐 나 다	오스트리아	스 웨덴	일 본	중 국 ('97)	쿠 바 ('98)
재배면적 (천ha)	10,000	2,960	1,168	950	725	697	665	509	479	297	187	5	1,130	1,300
총재배면적 대비비율(%)	2.2	1.7	8.0	0.2	4.2	4.1	2.3	1.7	1.3	11.6	6.1	0.1	0.8	19.7

* 자료 : IFOAM,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2004).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 추진계획인 의 제 21의 채택으로 모든 참여국이 농업정책을 환경 측면에서 재조명하기 시작하였고, OECD에서는 각국의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해 농업환경정책과 생산 및 무역과의 연계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유기농업 육성목표를 크게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유럽은 2006년 전체 소비자들의 58%가 유기농식품을 소비할 전망이다, 지출규모가 현재보다 두 배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유럽 전체소비자의 58%가 유기농식품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기농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정적 소비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산물 수요가 생산량을 계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국가의 유기농산물 현황은 표 1과 같다.

다. 친환경농업 국내·외 동향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합성농약에 크게 의존해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용량의 감소추세가 아직 완만한 수준이다. 전술하였듯이 2005년 환경지속성지수(ESI)의 농약·비료사용량 순위에서 146개 국가 중 비료사용량 9위, 농약 사용량 4위를 기록하였고, OECD국가 중 농약사용량 1위, 비료사용량 5위로 보고되었다. 화학비료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최근에 보조 폐지에

따른 조기구매로 인해 일시적 증가 추세를 보였고, 농약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으나 시설원예용과 제초제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말 기준으로 농경지 양분수급에서 질소는 소요량 대비 113%, 인산은 소요량 대비 125% 공급되고 있다. 비료 공급량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의 경우 질소가 165천톤(소요량 대비 37.4%), 인산이 140천톤(65.1%) 차지하고 있고, 가축분뇨는 발생량의 88.7%가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11%는 정화 또는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40%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2).

표 2.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농가수(천호)	1	2	5	12	23	29	53
재배면적(천ha)	1	2	5	11	22	28	50
생산량(천톤)	27	35	87	200	365	461	798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매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농

산물의 비중은 2000년에 0.2%에서 2002년에는 1.1, 2004년에는 2.5, 2005년에는 4%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인증단계별로는 저농약 인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기 축산물은 2005년 5월 최초 인증 후 13건이 인증되었고, 생산량은 3/4 분기에 70톤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은 다품목 소량생산이고 소비자층이 제한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와 전문 유통조직이 발달하여 왔다. 가격 결정과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계약에 의한 계약재배가 발달하고 있다(생산량의 35%수준). 최근 풀무원 올가, 동원 이팜 등 대기업과 신시, 한겨레 초록마을 등 기업의 유통 참여가 증가하고 전문유통업체 체인점도 확대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유통되며, 일부는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통구조가 다양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05년말 7,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그림 1).

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믿고 사는 유통을 실현한다” 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①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정착
- ② 고품질 안전농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건강증진
- ③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
- ④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유지
- ⑤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로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

5대 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 정착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외부자재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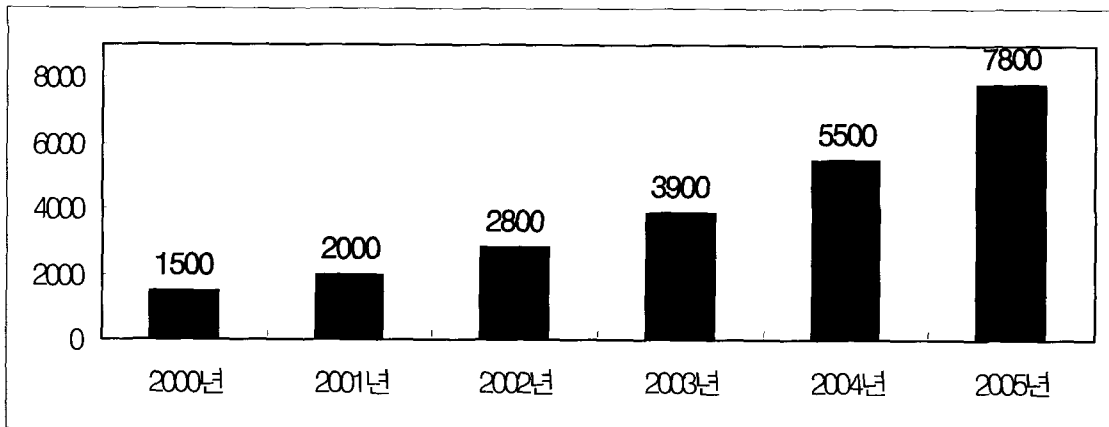


그림 1.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규모

라. 친환경농업 육성목표와 정책방향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목표가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중을 10%로 확대하여 생

율적인 경종분야 이용으로 농업환경오염 부하를 완화시킨다.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들의 안전 농식품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안전농산물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고품질농산물을 공급한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입농산물과 가격경쟁력 열세를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우위를 확보한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익성 유지를 위해 실천농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소득보전방안 마련으로 관행재배 농가의 원활한 친환경농업 진입을 도모한다.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 5일제와 1사 1촌 결연 확대로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을 농업인만이 아닌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인식전환하고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통한 물질균형을 유지한다.

Ⅲ. 정읍시의 농산물 특화발전 계획

1. 지역특성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의 거점지역으로 내장산의 단풍, 井邑詞, 동학농민혁명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찬란한 역사문화·예술의 전통을 지닌 개발 잠재력이 높은 도·농복합도시로 지리적으로는 호남고속도로(정읍·내장산 IC),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사·줄포 IC)와 고속철도(정읍역)가 있으며, 전주와 광주의 중간 거점도시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다.

청정지역인 내장산 주변에 150만평 규모의 방사선기술/생명공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건립으로 R&D중심의 식품·생명산업형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정읍시 비전실현 4대과제와 6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지역농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읍농업살리기 및 농축산업소재 제2차·제3차 산업육성을 위해 농업살리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업의 기본 역량을 확충하고, 농축산업소재 제2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생물·생명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농촌 체험관광을 적극 도입하

여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로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2. 농업 현황

정읍의 농가수는 13,956호(37,643명)로 시 인구의 24.1%이고, 농지면적은 25,068 ha로 논이 18,660 ha, 밭이 6,408 ha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약 35백만원의 농가 호당 평균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미곡, 맥류, 잡곡), 채소(무, 배추, 고추, 마늘, 수박, 참외), 특용작물(참깨, 들깨, 땅콩), 서류(감자, 고구마), 과수(사과, 배, 포도, 감), 두류(콩, 팥, 녹두)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지역 특화작물의 재배 면적은 단풍미인 쌀(6개 지역), 채소(울외, 쌈채소, 수세미, 여주), 과수(복분자, 석류, 매실, 대추, 감), 기호식품(녹차, 연꽃, 구절초), 버섯(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표고), 약초(지황, 오가피, 작약, 목단, 인삼) 등이 있다.

축산분야의 주요 사육가축은 한우로 42,000두(2,694농가)가 사육되고 있으며, 젖소 9,000두(148농가), 돼지 247,000두(168농가), 닭 2,797,000수(632농가)로 타 지역에 비해 한우사육(전국 2위)의 비중이 크다.

3. 농산물 특화(브랜드개발) 사업 추진성과

가. 단풍미인쌀, 단풍미인한우 브랜드 개발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정읍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내장산 단풍을 이미지로하여 “단풍미인”을 개발하여 대표 농산물인 쌀과 한우육에 브랜드를 도입하여 특화시켰다.

단풍미인쌀의 경우 2005년 현재 920 ha에서 재배되어 판매처 26개소 및 고객 8,000명 확보하여 105,000포(20kg용/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스포츠서울신문사 주관 2005년도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05. 5. 31).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풍미인 한우를 브랜드

로 하여 차별화된 사양관리를 위해 섬유질 사료공장을 준공하여(05. 3. 23) 일일 60톤의 사료를 생산하여 사양관리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판매 향상 및 고객 확보를 위해 현재 농특산품 및 단품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광고, 판매대상다양화, 가공식품개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지원 및 단품미인 브랜드화를 위한 전국적 유통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나. 지자체 주도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으로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역 농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주도 및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2005. 12월에 설립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전문 유통판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원순환농업 클러스터사업이 2005년 농림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농산물 특화 혁신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자생차 단지조성 사업, 친환경 영농교육 강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사업, 농업 연구기능강화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상대적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IV. 맺 음 말

우리 정읍시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찬란한 역사문화, 예술의 전통을 지니고 강인한 정신문화의 고장으로써 1960년대 인구 30만명을 육박하는 대한민국 5대 웅군(雄郡)중 하나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으나, 70~8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농업위주의 지역경제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여, 이농현상 및 경쟁력 약화로 시세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으로 민선 자치시대가 부활되면서 지역발전은 지역주인인 시민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인식하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민선 1~2기를 거치고 민선 3기를 맞아 정읍의 새로운 가치실현을 위하여 조직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정읍비전 4대 과제, 6대 역점 정책을 설정하였다.

농업위주의 지역경제 패턴을 첨단과학기술과 연관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청정농산물을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고, 기존 농업방식을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정책추진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개발로 새로운 농업정책방향을 전환하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정읍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단품미인』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2005 스포츠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 단품미인이란 브랜드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상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Codex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추진과, 지역 우수 농·축산물 특화발전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